

2015 7월~9월 vol. 10

Paminy

Pacorn Family
Paminy

2015 해외 Book fair 탐방기
기업현장간담회 현장스케치
소방합동훈련

고객님이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AP

MIRAEING

**Pacom
Books**

BOOK JIHYERO

Bookmake

BOOKMATE





vol. 10
2015 Jul. Aug. Sep.

CONTENTS

Pacom Family
Paminy

- | | |
|-----------|-----------------------|
| 02 북페어 | 2015 해외 Book fair 탐방기 |
| 04 팩کم피플 | 팩کم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
| 05 공감 | 오랜 시간 함께 한다는 것의 가치 |
| 06 동호회소식 | 낙시 동호회의 특별한 1박 2일 |
| 07 공감 | 말의 힘!! |
| 09 팩کم소식 | 팩کم프린팅 닷컴을 소개합니다 |
| 10 힐링로드 | 깨끗하고 푸른 거제도 |
| 12 현장스케치 | 기업현장간담회 현장스케치 |
| 14 쉬어가는 곳 |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 |
| 15 공감 | 설레임 |
| 16 팩کم소식 | 소방합동훈련 |
| 18 찰칵소리 | |
| 20 팩کم뉴스 | |

하계휴가의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사진을 찍어
suhee5336@gopacom.com 으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과 함께 Paminy 11호에 기재됩니다

* Paminy(Pacom Family)는 팩کم코리아에서 기획, 디자인, 인쇄한 사보입니다.

발행처 팩کم코리아 | 발행일 2015년 7월 24일 | 발행인 김경수 | 편집장 황철원 | 기자 이원성 박미선 주선영 이윤정 최광목 | 교정·교열 윤지은 | 디자인 김수희 | 인쇄 팩کمAAP

2015 해외 Book fair 탐방기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기존 참가했던 Book fair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에도 다녀왔는데요.
올해에 참가했던 Book fair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Bologna Children's Book fair

지난 3월 30일~4월 2일, 4일 동안 황철원 본 부장과 주선영 사원이 이태리의 볼로냐 Book fair에 다녀왔습니다. 2년 전의 Book fair가 축제와 같은 활발한 분위기였다면, 2015년 볼로냐 Book fair는 마치 세계 경제를 반영하듯 약간 한산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출장 2달 전부터, 잠재 고객을 찾기 위해 많은 업체와 사전 연락하여 현지에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중 이메일로 연락하여 만난 고객 중에는, 팩컴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리스 트 및 팩컴만의 장점을 듣고 싶어 하는 등,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여 한국 업체를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고객들은 주로 양장책의 색감과 품질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경쟁력 있는 가격과, 높은 인쇄 품질, 빠른 feedback 을 통해 꾸준히 잠재 고객과 컨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Buenos Aires Book fair

지난 4월 20~26일, 6일에 걸쳐 참가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Book fair는 팩컴이 처음 참가하는 Book fair로, 도전 팀의 김철성 부장과 박선희 사원이 다녀왔습니다. 처음 참가하는 Book fair였기 때문에, 단독 부스로 진행하기 보다는 부스 없이 여러 부스를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팩컴의 오래된 협력 업체인 CATAPULTA의 도움을 받아, 여러 업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팩컴을

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에노스 Book fair에서 만난 바이어들은, Local printer를 이용한 작업의 낮은 품질 문제 때문에 해외 인쇄 시장에 관심은 많았으나, 정작 경험이 많지 않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또한 shipping time이 길다 보니, 해외 시장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첫 참가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없었지만, 넓은 해외시장의 잠재 고객들에게 팩컴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3. Book Expo America (BEA)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는 New York에 있는 BEA Book fair에 도전 팀 김철성 부장과, 창조 팀 성문기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팩컴의 고객 중 미국 고객이 많은 만큼, 이 Book fair는 매년 참가하는 fair 중 하나 입니

다. 매년 규모가 점점 줄어들면서, 정말로 팩컴에 관심 있는 고객과, vendor를 찾고자 하는 고객들만 printing 부스에 방문 하는 것 같은 느낌 이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부스에 방문했던 고객들이 팩컴에서 만든 'Formento'나 'Araki'같은 양장책

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새로운 고객을 찾고, 지속적으로 컨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4. TIBF (동경 국제 도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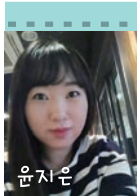
7월 1~4일, 4일간에 걸쳐 창조 팀의 황철원 본 부장과 홍석준 과장이 동경 국제 도서전에 참가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 fair에서 팩컴은 Dainippon과의 미팅을 통해 Workman calendar를 성공리에 마무리 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Dainippon이 중미, 남미 등의 제 3세계에 시장을 개척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양장본 문의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굉장히 높은 품질의 양장본 책을 생산하는 팩컴과의 연계가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도서전 기간 동안, Freerun의 영업 서포트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도서전에서 미팅 시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은 "최소 제작 가능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였는데, 이는 일본의 크게 발달한 동인지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인지는 그 특성상 소량 인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본 내의 소량 인쇄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단가 문제로 인해 오더 수량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일본의 촉박한 납기 요구를 맞출 수 있다면, 일본 시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 이운정**



팩컴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5월, 6월에 팩컴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팩컴 입사를 환영합니다! 이름과 나이, 입사일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5월 14일에 입사한 27살 신입사원 윤지은입니다.



소속 부서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경영기획부 소속으로, 대표 이사님 비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팩컴에 입사한 소감을 말해주시겠어요?



사회로 나가는 첫 발을 팩컴코리아에서 내디딜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팩컴코리아로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직원 분들이 다들 웃고 계셔서인지 회사의 분위기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입사하고 싶었는데, 합격 전화를 받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입사 하신지 1달 가량 되셨을 텐데, 입사 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집에서 편히 보던 잡지 한 권,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조금은 얼떨떨 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새로운 것이 너무 많아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반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황당한 질문에도 미소로 답해주시는 선배님들을 보며, '나도 꼭 저런 선배가 돼야지' 라는 때 이른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서 센스 있는 후배, 능력 있는 직원 윤지은이 되겠습니다.



팩컴 입사를 환영합니다. 이름과 나이, 입사일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5월18일에 입사한 26살 신입사원 박효정입니다.



소속 부서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북메이크팀 소속으로, 북메이크 웹사이트 관리, 고객관리, 파일검수 등 북메이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팩컴에 입사한 소감을 말해주시겠어요?



우선 한낱 백수였던 저를 직장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팩컴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팩컴에서 내딛게 된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선배님들 덕분에 매일 많은 걸 배우고 느낍니다. 월례 조회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배워 선배님들처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제 몫을 하는 팩컴인이 되겠습니다.^^



입사 하신지 1달 가량 되셨을 텐데, 입사 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진짜 입사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아마 첫 회사생활인지라 더욱 정신 없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지만 그래도 회사생활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씩 늘어간다는 것에 하루하루가 뿌듯합니다. 제가 이렇게 회사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살갑게 챙겨주시는 많은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아마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은 우리 회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팩컴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한다는 것의 가치

일본 곳곳에는 많은 장인들이 숨어있다. 이들은 주로 부모님에게 승계 받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거나 가내 수공업업을 이어가는데, 수대에 걸친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런 자부심은 단순히 기업을 경영만을 물려받아서는 생길 수 없다. 기술과 전통을 담은 오래된 장인 정신을 이어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엔 미국 문화를 잠시 들추어 보자. 미국에는 유난히 전설적인 영웅들 많다. 미국은 스포츠나, 예술 등의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유명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설화한다. 전설화된 미국의 영웅들은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여, 사람들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존경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화들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우리는 오래된 것들을 순식간에 바꾸고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변의 오래된 것들에 대한, 혹은 오래 같이한 사람들에게 대한 가치를 일깨우고 그 명예를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팩컴은 오랜 전통을 이어받은 유명한 인쇄회사로서, 구성원들 중에는 장인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오래 근무한 베테랑들이 많다. 그 분들 또한 현재까지 변함 없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오직 [책]이라는 공통 명제를 가지고 IMF등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딘 우리 팩컴 가족들을 존경하며, 앞으로도 오랜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팩컴을 번성시켰으면 한다.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맺은 [풍요]라는 달콤한 결실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P 황철원**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있을까? 낚시 동호회의 특별한 1박 2일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부지런히 달려 태안 학암포에서 낚시를 즐겼다.
직접 잡은 고기로 회도 즐기고 매운탕도 맛보며, 1박 2일 동안 태안바다를 200%즐길 수 있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팩킹 낚시 동호회는 배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예년에 출항했던 선착장보다 조금 더 먼 곳인 태안 학암포에서 출항했습니다. 이곳은 회사에서 2시간이 걸리는 선착장이기 때문에, 선착장에 7시까지 도착하기 위해 아무리 늦어도 5시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5시 30분에 회사에서 출발해도 여유롭게 갈 수 있던 선착장을 이용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듯한 일정에 도전한 것이지요.

5시 30분에 출발하든 5시에 출발하든 늦게 도착하는 직원은 꼭 1명씩 있기 마련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7시까지 도착해달라는 선장님의 말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늦게 도착한 직원이 있었답니다.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데..... 뭐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요^^.

낚시 동호회 박충용 총무께서는 배를 2개로 나누어, 미리 온 사람들은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6시 45분 이후에 온 직원들은, 맨 마지막에 온 직원과 함께 합류하여 7시 30분에 뿌으응~~ 소리와 함께 출항하였습니다. 그런데 7시 넘어서 출발 할 때는 선장님께서 굉장히 인상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의아해했었는데, 알고 보니 늦게 출발하면 좋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선장 탓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찍 출항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무사히 낚싯배 2대에 몸을 싣고 태안 앞바다에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선장님의 “뽻!” 신호에 맞추어 낚싯줄을 내리고, 두 번째 “뽻!” 소리에 맞추어 낚싯줄을 마구 끌어 올렸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물때가 좋아서 좋은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다만 기자 본인한테는 해당되지 않으나 봅니다. 저도 직접 고기를 잡아보려고 시도했지만, 낚시의 달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소 작은 2호 배에 탔었는데, 처음에는 제 자리가 좋지 않아 물고기가 안 물려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장님이 제 자리에서 월척을 낚는 것을 보고, 씩씩한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지요^^

11시쯤에는 아침에 많이 낚아 올린 고기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선장님의 능숙한 솜씨로 떠주신 회 한 점과 아침에 이슬(소주)의 콜라보는 새벽을 질주한 탓에 물려온 피곤함을 완벽하게 풀어주었습니다. 파도 치는 박



자에 맞추어 아침에 잡은 고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고, 점심 매운탕거리를 위해 또 다시 낚싯대를 잡았습니다. 신정학 과장과 박충용 과장의 낚싯대에는 고기가 줄 서서 기다리는 듯이 줄줄이 끌려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직원은 항상 어디에나 있는 법..... 1호, 2호 배에 한 명씩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습니다ㅎㅎ. (힌트: 1호는 그분! 2호는 늦게 오신 그분ㅎㅎ)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오후 점심 거리를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망망 대해를 친구 삼아 매운탕과 라면, 그리고 오전에 남은 약주를 즐겼던 그 행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후 3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가 잡은 고기가 가장 월척인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1호 배에서는 안명철 이사가 41cm 대어를, 조상무님이 개우럭을 낚아 올리셨습니다. 사장님께서도 한결 같은 정신 집중력으로 통통한 고기를 잡으신 후 얼썬~ 좋아하셨습니다. 2호 배에서는 윤전의 한창현 사원이 41.3cm의 우럭을 잡았습니다. 이 고기는 저녁상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요.

이번 낚시 동호회의 바다 낚시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오늘 출항을 도와주신 선장님의 댁에서 1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모닥불 주변에 두런 두런 둘러앉아, 오늘 낚시에서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기도 했고 평소 바빴던 탓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는 해장국과 반주로 해장을 하고, 모두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팩컴 낚시 동호회 회장인 안명철 이사께서는, 내년에는 처음 낚시에 도전하는 분들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셨습니다. 낚시를 통해서 쌓인 피로도 풀 수 있고, 직원들과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낚시 고수부터 한 번도 낚싯대를 잡아보지 않은 초보까지, 모두를 환영합니다! [P 이원성](#)



말의 힘!! 내가 쌀밥보다 못하냐!!

몇 해 전, 한 방송사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 하얀 쌀밥을 2개의 용기 안에 각각 넣어둔 후,
한 달 동안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다른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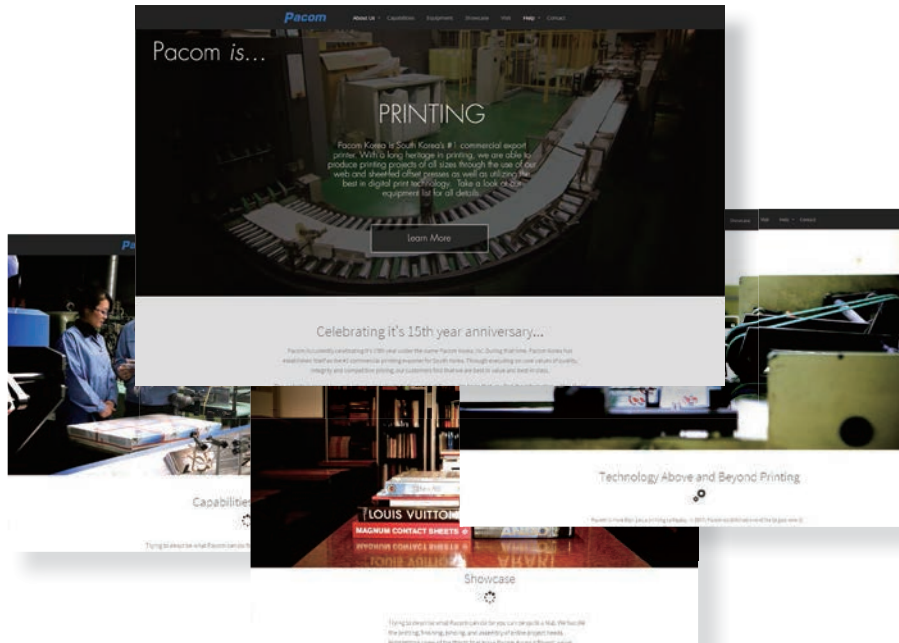
한 달 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맙습니다”라는 긍정의 말을 해준 용기에서는
구수한 누룩냄새가 났고,
“짜증나”라는 부정의 말을 해준 용기에는
썩은 검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쌀밥도 좋은 말 나쁜 말에 반응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로 내 건강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옆의 동료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더운 여름날 보양식만 챙겨 드시지 말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로 공짜 힐링 합시다! **P** 최광목

pacomprinting.com

팩컴프린팅 닷컴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팩컴 가족 여러분~

2015년 5월 15일 새롭게 문을 연 팩컴의 영문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홈페이지는 크게 7개의 주제로 나누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첫번째, About Us 는 팩컴의 역사, 사장님 메시지, 포트폴리오, 인증서 등 팩컴코리아를 소개하는 파트입니다. 두번째, Capabilities 는 팩컴코리아가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인쇄의 종류, 다양한 제본 사양, 팩키징 종류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Equipment는 프리프레스, 인쇄, 제본, POD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리스트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팩컴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리스트를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 Showcase는 팩컴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인쇄물을 고객에게 뽐내는 파트로, 독특한 제본이나 인쇄의 퀄리티를 소개하는 파트 입니다. Showcase는 팩컴가

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파트입니다^^

현재 Showcase를 보고 견적을 의뢰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고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프로젝트나 부서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sunyoung@gopacom.com으로 (해외영업팀 주선영) 메일 주세요~

다섯번째, Visit는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파트입니다.

여섯번째, Help는 고객들이 팩컴FTP 사이트에 파일을 올리는 방법과 더불어 자주하는 질문 10가지와, 배송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ntact에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견적요청 등을 팩컴코리아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홈페이지는 팩컴가족분들의 사진으로 꾸며졌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진도 감상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주선영**



깨끗하고 푸른 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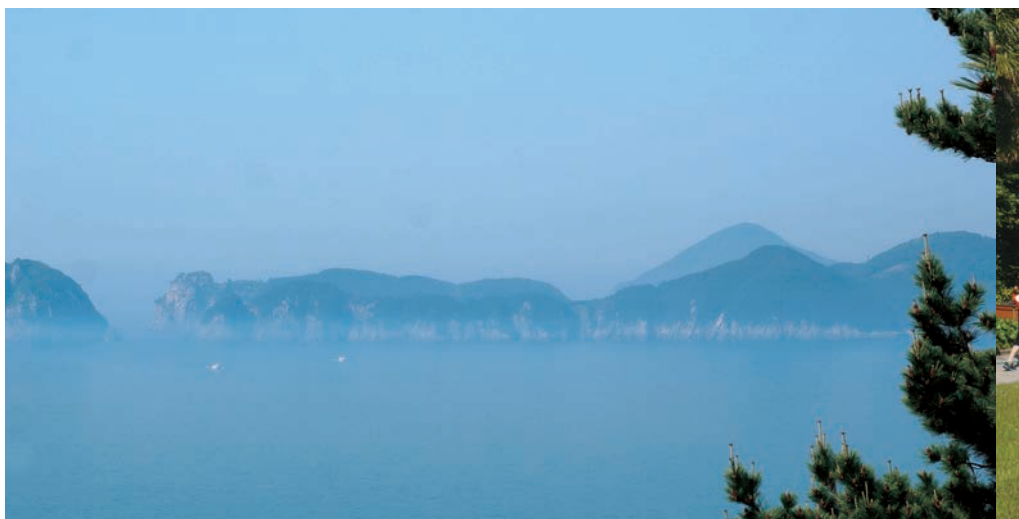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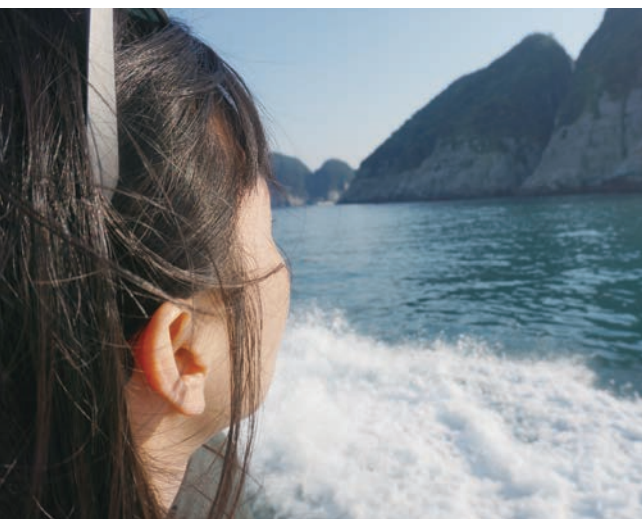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 거제도.

남쪽에는 깨끗하고 푸른 바다 위에 자리한 외도 보타니아와 해금강, 북쪽으로는 한국전쟁 중 유엔군에 포로가 됐던 공산군을 수용했던 포로수용소유적공원까지.

볼거리, 먹을 거리 가득한 거제도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5시간을 달리면 아름다운 섬 거제도에 도착한다. 거제도에서 해금강과 외도 보타니아로 가기 위해 장승포항으로 향했다. 유람선은 장승포항, 구조라항 등 6군데에서 탈 수 있으므로, 여행코스에 적합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새벽 6시, 첫배에 몸을 실었다. 거제도의 대표적인 여행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객 터미널은 이른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맛깔 나는 선장님

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유람선은 출발~! 은은한 햇살이 깨끗하고 푸른 남해바다 위에 비쳐 반짝반짝 빛이 난다. 거제의 명소 해금강에는 바다를 향해 포효하는 사자바위, 거북 바위 등 다양한 모양과 그와 딱 맞는 이름을 가진 바위들이 흠트려져 있어, 거제 바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고 있었다. 바위를 구경하다 보면 해금강 관광의 하이라이트인 십자동굴에 다다른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우뚝 솟은 바위 하나만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십자동굴의 모습이 드러나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관광객들의 함성소리 데시벨이 클수록 십자동굴로 더 깊이 들어 갈수 있다는 선장님의 말씀에, 유람선의 모든 사람들이 힘껏 함성을 질렀다. 바위 사이로 난 바닷길을 조심 조심 들어가니 십자동굴의 얼굴이 드러났

다. 해식작용으로 이렇게 멋진 동굴이 생긴 것이 감탄스러웠다. 멋진 해금강의 절경을 뒤로 하고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외도 보타니아로 뱃머리를 돌렸다. 외도 선착장에서 언덕을 올라가 걷다 보면 길쭉하게 뻗은 야자수 나무가 있다. 아열대 식물이 가득하여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주제별로 꾸며진 희귀식물을 만날 수 있는데, 낯선 식물들이 신기하여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외도를 상징하는 비너스 가든에는 아름다운 비너스 조각상과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천국의 계단이 있는데, 보는 순간 그 아름다움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비너스 가든에는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하얀색의 지중해풍 건물에 있는데, 현재의 외도를 있게 만든 부부가 실제로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 건물은 겨울연가의 마지막 촬영장소로 더욱더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고 한다. 언덕길을 오르면 외도의 전망대에 다다르게 된다. 이곳에서 드넓은 해금강을 감상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카페가 있다. 커피 한잔을 즐기며 푸르른 바다를 감상하고 싶었지만, 외도를 구경할 수 있는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발목을 잡아 눈물을 머금고 선착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선착장으로 가는 길에는 작은 기념품 샵과 외도 설립자의 외도 설립 과정을 볼 수 있는 외도 기념관이 있다. 척박했던 이곳을 멋진 식물정원으로 꾸민 부부의 열정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하얀 담장으로 꾸며진 계단을 내려오며 외도 보타니아의 여행을 마무리 했다. [P 주선영](#)



경기도지사와 함께한 기업현장간담회 현장스케치

팩컴코리아에서 군포시 당정동 공장 밀집 지역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 팩컴코리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김윤주 군포시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는 군포시 당정동 공장밀집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 사항과 민원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김윤주 군포시장님께서는 팩컴코리아(주) 김경수 대표 이사님의 안내에 따라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인쇄·제본 체험을 한 후 근로자·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팩컴코리아 4층 회의실에서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김윤주 군포시장, 김도현 경기도의원, 삼규철 새누리당 군포 당협위원장, 김광곤

경기지방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윤종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한정수 군포상공회의소 회장,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당정동 공장밀집지역의 기업인들은 주차공간 확보, 공장부지 확보, 공장 이전 제도 간소화, 공장 주변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위험물 철거 등 7건의 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박덕규 KCC 대표는 “회사 앞에 주차장이 있다. 하지만 하천 주차장으로 봐야 하는데,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주면, 지금보다 많은 차들을 주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단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주 군포시장님은 “주차선 표시와 노면 정비는 바로 해드리겠다. 더불어 당정동은 공용주차장 땅이 없다”며 “당정 2지구에 금년 7월에 개방할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리가 좀 있더라도 이용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안덕찬 이큐맥스제약(주) 상무이사는 “제조공장 부지 확보를 할 때, 산



단 입주 비용이 부지가격만 60억 원이 넘는다”며 “이자율이 연간 3억5천만 원 나간다. 경기도와 시에서 보조지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석 동천의료기 대표는 “공장 이전 시 기존 이력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 현재 타 지역으로 공장 이전 시 산집법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공장 이력을 폐쇄하는 불이익이 있는데, 앞으로 기존공장 이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김관진 성신화학 대표는 “군포시 관내에는 중소기업홍보전시관이 없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전시관 설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재숙 (주)타이텍 대표는 “당정동 공단지역은 골목이 많고 좁은 도로가 많다. 차량 이동 중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며 “공단 내 중소기업이나 3D 업종이 많다 보니 근로자들이 24시간 위험에 노출된다. 공단 내에 사건사고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를 도지사님께 건의한다”고 말했습니다.

CCTV 설치 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이것은 저희가 왔다가 간 선물로 해드리겠다”며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김윤주 시장도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발로 뛰며 설치하겠다. 보안 강화 등은 시에서 바로 처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정현 흥은전자 대표는 “군포 제1공단에 길이 80m, 높이 2.5m의 옹벽에 균열이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며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누가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군포시와 도 관계자께서 잘 검토해주셔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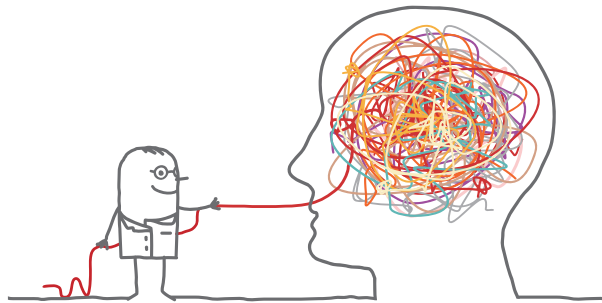
이에 대해 오후석 도 안전기획관은 “현장(점검을) 다녀왔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한쪽 담이 3~10도 정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현재 붕괴 위험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에 조속한 시간 내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남경필 도지사님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만들기이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도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로서는 기업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윤주 군포시장님은 “군포지역 공장지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도지사님과 경기지역 경제 분야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약속해줘서 매우 든든하다”며 “오늘 이후 군포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미선**



재·리로 보는 심리 테스트



나는 지금 혼자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나를 못
본체 하고 지나친다면 그 순간
나의 심정과 기분은 어떨까요?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친한
이웃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얼른 달려가 그 짐을 받아 집까지
가져다 주었지요, 친한 이웃사람은
내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는 지금 물을 마시려고 해요.
컵에 물을 얼마나 따라
마셨을까요?

혼자서 여행을 가게 되어 비행기
에 탑승하였어요, 비행기 안에
몇 명이나 타고 있을까요?

어느 날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눈 앞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돈은 얼마일까요?

길가에서 우연히 연예인을
만났어요, 자세히 보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인 거예요!
그(녀)는 누구인가요?

내가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에게
문자가 왔지만 나는 그 문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 친구는 내게 문자를
몇 통이나 보냈을까요?

직업이 탐험가인 나는 어느 날
동굴에 가게 되었어요.
그 동굴 속에는 무엇인가가 앉아
있어 자세히 보니 동물이었습니
다.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 처음 애인에게 차일 때 기분
- 자신이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말
-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의 수
- 태어나서 처음 벌어들인 돈의 양

- 욕망의 정도, 물을 많이 따를수록 욕망이 많다.
- 꼭 보게 되는 연예인
- 친한 친구와의 우정지수
- 자신과 닮은 동물

A sepia-toned illustration of a park scene. In the foreground, a wooden park bench with ornate metal armrests and legs is visible. Behind it, another bench is partially obscured. A tall, slender street lamp stands near the center.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dense, leafy trees, creating a soft, dappled light effect. The overall mood is nostalgic and quiet.

설레임

황철원

저 골목만 돌면
작은 공원 벤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너

식어라 뜨거운 열기여!
딱 막힌 문을 뜯어 내면
불 가마 속
살아 숨쉬고 있을 너

잔잔한 강물 위
가느다란 낚싯줄에 매달려
금방이라도
곤두박질 칠 것 같은 너

오크통에서의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다시 병속의 잠에서 깨어
내 미각을 자극할 보랏빛 너

푸르른 날
자그마한 팬션
데킬라 잔위로 라임향이 퍼질때
통기타 메고 나타날 그를
기다리는 우리



군포소방서와 팩컴그룹이 함께한 소방합동훈련

6월 25일 오후 1시 50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목요일 오후, 배불리 먹은 점심 탓에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줄음과의 싸움에서 항복하기 직전, 난데없는 사이렌 소리에 줄음이 화들짝 놀라 도망간다.
 이어서 들리는 대피 방송, “2015년 6월 25일 13시 50분 팩컴그룹 지상3층에서 화재발생.
 전 직원은 모두 비상 탈출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화재예방 훈련입니다.”





13시 50분 팩컴 군포공장 3층 양장기 주변 유리창에서 노란 연막탄이 피어 오르기 시작했다. 이어서 화재를 경보하는 사이렌이 전 층에 울리기 시작했고, 팩컴 직장소방대 지휘본부에서는 대피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13시 51분 각 층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신속히 비상대 피소가 있는 정문 경비실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현장 직원들이 비상대피 소로 이동하는 사이, 팩컴 직장 소방대원들은 소방대원 훈련 담당자와 함께 1층 계단 앞에 있는 실외 방수구를 이용하여 물을 끄는 훈련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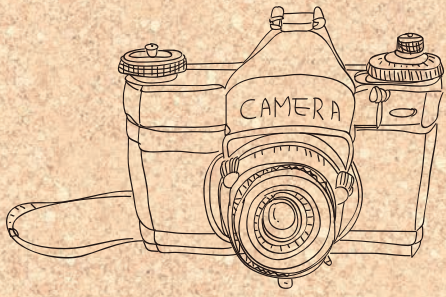
14시 03분 119에 화재 신고 접수 후 7분이 지난 시점인 14시 3분, 소방지휘본부 차량 및 소방급수차량 등 4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후문을 통해 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14시 04분 소방차량 3대가 파지장 출구의 복측 계단을 이용하여 화재 발생 지점인 3층으로 올라갔다. 뒤이어 굴절소방차량 등 유해물질 전담 화재 차량 5대가 정문으로 들어와, 옥상까지 번지고 있는 노란 연막탄 연기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물대포를 쏘 진압하였다. 화재 발생 25분만에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소방합동훈련은 최대한 실제와 같이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3층에서 환자가 발생한 시나리오도 수행했다. 화재발생으로 부상을 입은 가상 환자는 팩컴 직장소방대의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이용하여 1층으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대기중인 구급차량으로 신속히 후송됐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화재진압차량 12대, 지휘본부차량 1대, 구급차량 2대, 총 15대가 출동했다. 모두 지정된 도착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이번 군포소방서 합동훈련을 위해 소방서에서는 팩컴공장의 화재취약 위치점 등을 사전에 모두 확인했다. 이번 훈련은 향후 화재 발생시 더욱 신속한 화재 진압은 물론, 모든 근로자들이 골든타임 이전에 대피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훈련 연습은 상반기와 하반기, 주간 및 야간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P이원성](#)





찰칵소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E-mail : suhee5336@gopacom.com





PACOM NEWS

긍정커뮤니케이션 강좌



지난 4월 1일, 직원들의 긍정적인 직장생활을 고취하고자 월례조회 시간에 윤정훈 전문강사를 초빙하였다. 이날 윤강사는 인간이 가진 7가지 권리인, 1.생각을 바꿀 권리, 2.뭔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권리, 3.양심의 가책 없이 부탁을 거절할 권리, 4.실수를 할 권리, 5.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탁할 권리, 6.자신의 행동을 변호하지 않을 권리, 7.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1시간 동안 이색적인 질문들로 130여명을 주목시키며,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소통 방법을 전파했다.

당사 방문을 환영 합니다.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많은 해외고객과 공장 견학생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4월 3일에는 BrwonTrout Publishers, inc에서 방문하여

인쇄품질 및 2015년 생산일정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Noah Publishing의 Benjamin Mendlowitz와 Shearson Publishing의 Craig Johnson씨는 올해도 변함없이 방문해주셨다. 또한 프랑스의 바이어 M.Laurent Bourgeois의 고객은 당사에 첫 방문을 하였다. 이 밖에 많은 바이어들이 올해 생산일정 조율 및 품질 확인을 위해 당사를 방문했다. 또한 명지전문대학생 및 북한이탈주민도 당사를 방문 하여 인쇄 및 제본의 생산현장을 견학하고 돌아갔다.



봄맞이 공장 대청소 실시

지난 4월 7일에는 봄을 맞이 하여 직원 전체가 공장 내부 및 외부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한 이번 청소에서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기계 뒷부분 정비, 손이 닿지 않는 곳의 묵은 때 제거, 공장 담벼락 주변의 담배꽂초 줍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직원들이 각 공정 별로 임무를 나누어 실시 하였으며, 봄맞이 대청소로 회사가 한결 청결하고 깨끗해졌다. 관리본부에서는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공장 대청소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포시 기업현장 간담회



지난 5월 18일, 경기도 남경필도지사께서 군포시를 대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당사를 방문하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4시 당사에 도착하여 김경수 사장님과 함께 인쇄, 제본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특히 제본부서의 양장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후 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인과 경기도 실무국장 및 근로자 대표가 한 자리에 앉아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애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협소한 주차장 문제 및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30여명의 기자들과 지상파 SBS 뉴스팀에서 촬영을 하였다.

근로자의 날 기념 특식



지난4월 30일,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에 보쌈파티를 열었다. 작년에는 삼겹살 파티를 하였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위가 일찍 찾아와 보쌈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싱싱한 상추, 야채와 함께 제공된 푸짐한 보쌈 고기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새로운 다짐을 한 팩컴의 근로자

PACOM NEWS

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5급 신입 사무관 중소기업 현장 근무



지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정부 중앙부처의 신입사무관 12명이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당사의 생산현장에서 중소기업 현장 근무 체험을 하였다.

신입 사무관들은 제본사업본부의 2층 포장팀에 투입되어 체험을 하였다. 올해의 사무관들은 예년 사무관들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약하고 생산능률이 낮아, 예년 사무관들과 현장 체험 하는 모습이 비교가 될 정도였다. 하지만 3, 4일차에 접어들며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소기업 현장 체험의 느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했다. 마지막 날인 5일차 오후의 간담회에서는 “첫 날 하루는 한 달 이상의 긴 교육기간처럼 느껴졌는데,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현업에 복귀하여서도 이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방훈련



지난 6월 25일, 군포소방서는 팩컴그룹과 함께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군포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6개 소방파출

소가 모두 참여했으며, 팩컴 군포공장에 발생한 가상의 화재를 진압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화재 훈련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지사 상 수상



지난 7월 9일, 경기도 본청 월례조회 시간에 팩컴코리아 김경수사장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손주 득남



지난 7월 1일, 김경수 대표님과 최숙 대표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다. 대전에서 태어난 첫 손주는 3.39kg의 건강한 사내아리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한다. 세상의 빛을 처음 본 이 아기에겐 앞으로 축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새로운 가족을 환영 합니다

2/4분기에 새로 입사하여 팩컴 그룹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축하 합니다.

제본사업본부 통신팀 유태종사원 / 인쇄사업본부 8호기 최성혁부장



인쇄사업본부 9호기 김기수부장 / 제본사업본부 중철팀 최재원사원



정비부 송용진사원 / 팩컴코리아 윤지은사원 / 북메이크 박효정사원



한편 지난 3월31일자로 정년을 맞이하신 김이균 부기장님과 5월31일자로 정년을 맞이하신 김순복님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화되어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하게 되었다.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책 한 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Book^make

휴가 때 여행 다녀 온 기념으로 사진집을 만들어 볼까, 책장 한 칸에 간직해 온
내 소설을 책으로 만들어 볼까 이제껏 고민하셨나요? 이제는 실천하세요!
북메이크가 당신이 원하는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머릿 속에만 간직해 온 추억을 책으로 만들어 기록을 남기세요^^

북메이크는 “대한민국 1위 인쇄 수출 기업” 팩컴의 소량 인쇄 제작 서비스 브랜드로,
2008년 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고자 5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컴코리아 www.gopacom.com | 북메이크 www.bookmake.co.kr | 문의 : 1577-3669